

農家金融構造의 分析

—京畿道 楊州郡 2個部落調査를 中心으로—

鄭 英 *

.....<目 次>.....	
I. 序 言	1. 農家負債스토크의 現況
II. 標本地域 및 農家の 特性	2. 農家借入의 構造
III. 農家の 金融資産保有	V. 要約과 結言
IV. 農家負債 및 借入金의 構造	

I. 序 言

本研究는 家計貯蓄行態에 관한 共同研究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1977~78년에 행해진 이 共同研究는 家計의 類型을 都市勤勞者家計, 都市非勤勞者家計 및 農家家計의 세 가지로 나누어 各各의 資産選擇行爲와 貯蓄行態에 관한 小規模의 標本調査를 實施하였다.

調査研究期間 및 人員 기타의 制約으로 인해 家計調査는 극히 試驗的인 性格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標本家口數는 家口類型別로 各各 100戶內外, 調査地城도 都市勤勞者 및 都市非勤勞者 家計는 서울市內, 農家에 관해서는 京畿道 楊州郡內 2個部落에 局限되었다. 調査項目은 都市家計에 있어서는 貯蓄의 現狀 및 貯蓄率의 決定要因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農家の 경우에는 貯蓄에 관한 意識 내지 態度調査에 덧붙여 農家の 金融行爲에 관한 약간의 調査가 포함되었다.

農家調査의 項目이 都市家計의 경우와는 달리 단지 貯蓄行爲의 側面에만 局限될 수 없는 것은 家計와 經營이 混在된 家族的 小農經營의 特質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再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農家は 消費·貯蓄者인 동시에 生産·投資者로서 한층 중요한 機能을 지닌다. 그리고 韓國農業의 實態 위에서 말하면 종래 貯蓄主體(資金供給者)로서의 農家보다는 生産 및 投資者(資金需要者)로서의 農家の 側面이 한층 切實했으며 近年에 이르기까지도 制度金融의 不備 또는 私金融에의 過度한 依存, 消費金融의 性格 등이 큰 問題로 浮刻되어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왔던 것을否認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本研究에서 행해진 農家調查結果 중에서 農家の 金融構造에 관한 諸側面을 중심으로 叙述하고 이를 利用可能한 既存調查結果와 對比하여 最近의 變化와 그 含意에 관해 言及하고자 한다. 農家の 貯蓄에 관한 態度 내지 意識에 관한 調查結果는 가까운 장래 別途의 機會에 發表될 것이다.

農家の 金融行爲 및 그 構造에 관한 既存의 調查結果로서는 農水産部の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와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가 실시해 온 「農業信用調查報告」 그리고 그밖의 不定期的인 比較적 小規模의 調查研究들을 들 수 있다. 農水産部の 「農家經濟調查」는 農家經濟 및 經營全般의 實態把握을 위한 가장 基本的인 調查의 하나로서 調查項目 속에 農家の 財産의 收入·支出 및 借入金 등 폭넓은 情報를 포함하고 있으며 每年 同一한 方式으로 행해진 時系列資料를 제공해 주지만, 그 調查의 目的에 비추어 農家金融去來에 관한 자세한 情報를 얻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農協中央會調查部는 農業信用의 當面問題把握과 農業經營融資所要額推定 등을 위한 大規模의 農業信用調查를 1964, 71, 76年の 3次에 걸쳐 實施해 왔으며, 이 調查에는 農家負債, 借入金, 金融資産, 契, 貯蓄態度 등에 관해 자세한 項目들이 포괄되어 있다. 1964年 調查(第1次)는 全國 26個 標本部落의 1,843戶 農家를 對象으로 1964年 7月 31日 基準(靜態調查項目), 1963年 8月 1日~1964年 7月 31日間을 調查對象期間(動態調查項目)으로 하여 행해졌으며, 1971年(第2次) 및 1976年 調查(第3次)는 各各 全國 30個 地域 1,500戶의 農家를 標本으로 各各 當年 7月 31日 基準 前年 8月 1日~當年 7月 31日間을 調查對象期間으로 한 他計式面接調查方式으로 행해졌다. 第1次 및 第2次 調查의 結果는 本研究에서 重要한 參考로 活用될 수 있었으나, 第3次 調查結果는 현재로서는 一部分만이 利用될 수 있어, 標本の 代表性面에서는 制約이 큼에도 불구하고 本調查의 結果值를 援用하면서 70年代에 들어선 이후의 農家經濟의 현저한 變動이 農家金融面에 投影된 變化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II. 標本地域 및 農家の 特性

本調査는 京畿道 楊州郡內 2個隣接部落 98戶의 農業自營家口를 標本으로 하여 1977年 8月에 행해졌으며, 調查基準時點은 1977年 6月 30日, 調查對象期間은 1976年 7月 1日에서 1977年 6月 30日까지의 滿 1年間으로 하였다. 調查는 4人的 調查員에 의한 他計式面接調查方式으로 행해졌으며 調查項目은 本稿와는 다른 機會에 發表될 貯蓄에 대한 意識 및 態度

調査 외에, 農家の 調査基準時點 현재의 金融資産保有, 農家負債殘高, 調査對象期間 1年間の 借入金 등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調査對象家口는 標本地域 2個部落 全家口중 非農家 등을 제외한 自營農家(耕種뿐 아니라 韓牛飼育 등 耕種外農家도 포함)로서 調査期間中 被調査者(家口主 또는 주된 營農者)의 出他등으로 인한 面接不能家口를 제외한 全家口로 하였다. 調査對象家口가 隣接한 2個部落이라는 한 地域에 集中된 것은 不過 100戶정도의 小規模의 標本調査에서 調査地域을 多數로 分散시키는 데에 따르는 得失을 勘案할 때 集中에서 얻는 便宜의 쪽이 클 것으로 判斷한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標本地域의 概況과 特性 및 農家の 階層構成에 대하여 論及해 두고자 한다.

調査地域인 京畿道 楊州郡 S面 W리는 서울에서 京春國道로 약 1時間(市外버스) 所要地點인 牛市場으로 유명한 楊州郡 H面 M里로부터 分岐한 地方道로 다시 약 50分이 所要되는 準山間地帶에 속하는 純農村地帶로서 최근에는 交通網이 改善되어 國道分岐點인 M里에서의 接續便 외에 서울 馬場洞터미널에서 直行버스가 1日 9回 往復하고 있다. W리는 總戶數가 153戶이고 法定里洞으로는 하나이지만 聚落의 形態에 따라 市外버스가 통과하는 地方道에 隣接한 地域과 거기서 약 2~3km 徒歩로 들어가는 地域을 각각 묶어 行政區域上으로는 1,2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1리에 92戶, 2리에 61戶가 포함되어 있다.

標本部落이 속하고 있는 S面은 1963年의 行政區域改編때 加平郡에 속해 있었던 3個法定里와 楊州郡의 他面에 속했던 4個里가 統合新設된 곳으로서 北漢江의 支流인 淸平川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교적 水量이 풍부한 河川을 중심으로 溪谷의 兩岸에 발달된, 背後에 深山을 지니고 있는 奧地에 위치하는 人口 약 5,800人의 小面이다. S面に 속하는 12個行政里洞중에서도 調査地域인 W 1,2리는 農外所得의 源泉이 비교적 制約된 곳으로 1리는 面內에서 中, 2리는 中下 정도의 平均所得水準에 속한다. 그러나 隣近의 他部落에 비해 特殊한 條件들 예컨대 C穀產의 畜産團地에서 얻는 農業勞賃所得의 恒常的 存在, 信用協同組合의 活潑한 움직임에서 오는 金融構造의 特殊性, 保稅加工縫製工場就業에서 얻는 상당한 액수의 農外所得의 存在 등이 미치는 攪亂要因을 排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典型的인 純粹農村으로서의 性格을 갖추고 있어 任意抽出標本地域으로서는 適合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標本部落의 家口, 人口, 耕地, 所得 등에 관한 1976年 現在の 概況을 摘記해 보면 <表 1>과 같다. 總家口중 自營農家の 比率은 1리에서 81.5%, 2리에서 68.9%, 平均 76.5%에 이르고 있다. 耕地條件에서 農家戶當耕地面積은 1리보다 2리가 넓으나 田畝의 構成비에 있어서는 1리쪽이 畝率이 높아 一義的으로 優劣을 말하기는 어렵다. 戶當耕地面積은 8.64段步여서 全國平均 9.58段步에 약간 모자라는 水準에 있으나 넓은 林野를 지니고 있어 草資

〈表 1〉 標本地域概況 (1976年)

	W 1里	W 2里	計(平均)
總家口數(戶)	92(100.0)	61(100.0)	153(100.0)
農家	75 (81.5)	42 (68.9)	117 (76.5)
非農家	17 (18.5)	19 (31.1)	36 (23.5)
總人口(人)	466	352	818
戶當人口	5.07	5.77	5.35
總耕地面積(ha)	55.6(100.0)	45.5(100.0)	101.1(100.0)
田	22.4 (40.3)	24.4 (53.6)	46.8 (46.3)
畚	33.2 (59.7)	21.1 (46.4)	54.3 (53.7)
林野總面積(ha)	627	433	1,060
農家戶當耕地面積(a)	74.1	108.3	86.4
田	29.8	58.1	40.0
畚	44.3	50.2	46.4
總所得(千圓)	104,429(100.0)	56,920(100.0)	161,349(100.0)
農產物	85,299 (81.7)	34,649 (60.9)	119,948 (74.3)
畜產物	10,551 (10.1)	8,674 (15.2)	19,200 (11.9)
林產物	3,058 (2.9)	4,475 (7.9)	7,533 (4.7)
勤勞所得	1,484 (1.4)	6,245 (11.0)	7,729 (4.8)
自營業所得	780 (0.7)	292 (0.5)	1,072 (0.7)
其他所得	3,257 (3.1)	2,585 (4.5)	5,842 (3.6)
戶當所得(千圓)	1,135	933	1,055

註：1) 위의 數値는 面事務所에서 제공받은 것임.

2) 所得은 마을담당 公務員과 里長이 共同作成하여 郡이 確認한 「새마을 簡易所得調査」 結果值를 參考로 掲載한 것임.

源을 비롯한 山地利用을 통한 所得源開發의 可能性을 지닌 有利性을 갖추고 있다.

所得의 構成을 보면 農產物이 74.3%, 畜產物이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勤勞所得, 林產物, 自營業 등의 比重은 매우 낮은 편이다. 主要生産物로서는 農產物 가운데는 쌀의 比重이 46%로서 壓倒的이며 고추와 마늘이 비교적 重要성이 높다. 畜產物로서는 韓牛增殖이 그리고 蠶繭이 풍부한 山地를 活用하여 行해지고 있으며 그밖의 兼業은 自營兼業, 被傭兼業 모두가 극히 微微한 편이다.

非農家를 포함한 戶當年間所得은 1,055千圓 정도로서 農水産部の 「農家經濟調査」에 나타난 全國平均 農家所得 1,156,254원의 91.2%의 水準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地域의 非農家가 農業自營家口에 비해 비교적 낮은 所得水準에 머물 수 밖에 없는 經濟的 條件을 勘案할 때 調査對象으로 된 農家の 所得水準은 위의 平均所得보다는 높아져 全國平均에 훨씬 接近하는 水準에 있을 것임을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다.

〈表 2〉에 보인 標本農家の 耕地規模別 構成을 1976年の 全國農家の 그것과 比較하면 0.5

〈表 2〉 標本農家の 耕地規模別 構成

	農家戶數(戶)	構成比(%)
0.5 町步 未滿	18	18.4
0.5~1.0 町步	38	38.8
1.0~1.5 町步	25	25.5
1.5~2.0 町步	12	12.2
2.0 町步 以上	5	5.1
計	98	100.0

町步未滿層과 2.0町步以上層의 構成比가 全國平均에 비해 낮은 대신 0.5町步以上 2.0町步未滿의 各階層의 構成比가 높은 分布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말해서 標本農家の 階層構成은 兩極端보다는 中間層에 속하는 農家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節에서 마지막으로 言及해 둘 것은 標本農家の 階層指標에 관해서이다. 所得, 資産, 耕地規模 등 多様な 階層指標가 農家調査에 있어 採用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經營耕地規模라는 單一指標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理由는 調査地域의 農家の 業態는 비교적 同質적인 米作中心이며 所得, 資産 등의 指標를 導入하기 위해서는 一時點調査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多數의 項目을 調査하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III. 農家の 金融資産保有

農家가 保有하는 各種金融資産의 水準과 構成, 그리고 그 階層別 特徵을 밝히는 것은 本調査에 큰 比重을 지니는 項目이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年 6月 30日 現在 標本農家가 지니고 있는 戶當 金融資産保有額은 199,520원으로 集計되었으며, 그 구성은 預金, 出資金, 共濟 및 保險拂入金이 전체의 55.1%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比重을 지녔으며 다음으로 現金의 15.1%, 有價證券, 契拂入金 및 貸付金이 각각 9%臺의 比重을 나누어 지니고 있다. 이러한 金融資産의 構成內容은 흔히 契 및 私金融이 主導하는 종래의 모습과는 상당한 距離를 지닌 現狀임을 먼저 보게 된다.

다음으로 〈表 3〉을 耕地規模에 따른 差異에 注目해서 보자. 먼저 戶當金融資産의 總額에서 1.5~2.0町步層이 특히 높고 0.5町步未滿層이 특히 낮은 이외에는 모든 階層이 거의 平均値와 비슷한 水準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 것은 1.5~2.0町步層이 특히 높게 나타난 理由는 有價證券이 단 한 農家에서 1,900千원이 보유되고 있는 데서

〈表 3〉 耕地規模別 農家の 金融資産保有(戶當平均) (1977年 6月末 현재)

	平 均	0.5 町步 未 滿	0.5~1.0 町 步	1.0~1.5 町 步	1.5~2.0 町 步	2.0 町步 以 上
預金, 出資金, 共濟 및 保險拂入金	109,939 (55.1)	41,389 (61.9)	154,895 (75.5)	72,520 (34.7)	165,333 (47.6)	69,200 (35.1)
有價證券	19,388 (9.7)	—	—	—	158,333 (45.6)	—
契拂入金	19,184 (9.6)	2,444 (3.7)	26,026 (12.7)	13,480 (6.4)	—	106,000 (53.8)
貸 付 金	18,724 (9.4)	22,222 (33.2)	10,921 (5.3)	32,800 (15.7)	16,666 (4.8)	—
現 金	30,071 (15.1)	833 (1.2)	13,184 (6.4)	89,360 (42.8)	7,250 (2.1)	22,000 (11.2)
其 他	2,140 (0.1)	—	—	840 (0.4)	—	—
合 計	199,520 (100.0)	66,888 (100.0)	205,026 (100.0)	209,000 (100.0)	347,582 (100.0)	197,200 (100.0)

비롯된 偏倚라는 점이다. 이를 勘案해서 보면 零細農층을 제외하면 모든 階層의 農家は 거의 200千圓内外의 金融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셈이어서 階層間의 平準化現象이 엿보인다. 이는 農家資産의 保有形態가 所得 및 資産規模의 增加에 따라 實物資産中心으로 擴大될 뿐 金融資産의 擴大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推論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밖의 階層間의 特徵으로서 大農層에 契拂入金의 比重이 높으며 零細農層에 額數는 微微하나 貸付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大農層에서 土地購入등 資産增殖을 위한 비교적 規模가 큰 契가 盛行되는 例는 筆者가 1977年 2월에 行한 農村調査에서 京畿道の 雀作平野

〈表 4〉 農家金融資産保有構成의 比較(戶當平均) (單位: 圓, %)

	本 調 査 (1977.6)	農水産部「農 家經濟調査」 (1976) ¹⁾	農協「農業信用調査」		
			(1976.7)	(1971.7)	(1964.7)
預金, 出資金, 共濟 및 保險拂入金	109,939 (55.1)	36,088 ²⁾ (19.2)	73,000 (42.2)	19,312 (47.4)	130 ²⁾ (4.1)
有 價 證 券	19,388 (9.7)	—	1,500 (0.9)	44 (0.1)	—
契 拂 入 金	19,184 (9.6)	—	51,400 (29.7)	9,071 (22.4)	—
貸 付 金	18,724 (9.4)	41,327 (22.0)	25,800 (14.9)	10,796 (26.5)	1,371 (43.5)
現 金	30,071 (15.1)	65,450 (34.9)	16,700 (9.7)	1,474 (3.6)	776 (24.6)
其 他	214 (0.1)	44,791 (23.9)	4,500 (0.5)	—	876 (27.8)
合 計	199,520 (100.0)	187,656 (100.0)	172,900 (100.0)	40,697 (100.0)	3,153 (100.0)

註: 1) 「農家經濟調査」에서의 農家資産區分 가운데서 流通資産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는 金融資産으로 간주한 것임.

2) 預金만임.

地帶를 中心으로 볼 수 있었으며 傳統的인 物品契, 親睦契, 相助契 등의 小規模의 契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은 이 地域에서도 共通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本調査에서 얻은 金融資産保有의 構成을 援用가능한 既存調査結果와 對比한 것이 <表 4>이다. 本調査와 表에 引用된 몇 차례의 調査들간에는 金融資産의 項目區分에 있어 약간의 不一致가 있으나 比較를 불가능하게 할 만큼 深刻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戶當平均金融資産總額은 本調査(1977.6)의 値가 199,520원, 「農家經濟調査」(1976) 値가 187,656원, 農協의 1976年度 「農業信用調査」 値가 172,900원으로 비교적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金融資産의 構成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엿보인다. 項目分類가 共通의인 貸付金 및 現金의 構成比가 本調査에서는 各各 9.4%와 15.1% 計 24.5%인데 비해 農水産部調査(1976)에서는 各各 22.0%와 34.9% 計 56.9%에 달하며 農協調査(1976)에서는 各各 14.9%와 9.7% 計 24.6%로서 農協調査와 本調査가 매우 接近하고 있으나 農水産部調査值만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契拂入金의 構成比는 農協調査值가 本調査值를 훨씬 上廻하고 있는 반면, 預金, 出資金, 共濟 및 保險契入金의 構成比는 本調査值가 農協의 兩次的 1971, 76年 調査值를 능가하는 수준에 있다.

農協調査와 本調査를 통하여 共通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貸付金 및 現金保有의 比率이 持續적으로 낮아져 오고 있는 점이며 이는 農村에 있어서의 私金融市場의 漸次的 後退와 관련되는 밝은 材料라고 하겠다.

<表 5>는 農家が 保有하는 金融資産의 規模를 總資産規模 및 所得水準의 變動과 관련시켜 나타낸 것이다. 먼저 農家總資産속에서 金融資産이 차지하는 比重은 農協調査에 의하면 1964年의 0.8%에서 1971年의 3.9%로 크게 높아져 왔으며, 「農家經濟調査」에 따르면 1964

<表 5> 農家資産, 金融資産 및 所得水準과의 關係(戶當平均)

(單位: 원)

	本 調 査 (1977.6)	農水産部「農家經濟調査」			農協「農業信用調査」	
		(1976)	(1971)	(1964)	(1971)	(1964)
金融資産(또는 流通資産)保有 (A)	199,520	187,656	46,287	6,861	40,697	3,153
農 家 資 産 (B)	(6,299,282)	6,299,282	1,100,370	388,528	1,033,058	412,202
農 家 所 得 (C)	(1,156,254)	1,156,254	356,382	125,692	243,528	90,501
A/B(%)	(3.1)	3.0	4.2	1.8	3.9	0.8
A/C(%)	(17.3)	16.8	13.0	5.5	16.7	3.5

註: 本調査에서는 農家資産總額 및 農家所得調査를 別途로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農家經濟調査」의 1976年值를 代用하였지만, 標本農家の 經濟的 與件을 勘案할 때 대체로 無妨할 것으로 判斷됨.

년의 1.8%, 1971년의 4.2%, 그리고 1976년의 3.0%로 변동되어 왔다. 本調査에서는 農家總資産에 관한 調査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農家經濟調査」의 結果值로 代用할 때 그 比率은 1977年 6月 現在 3.1%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편 農家所得에 대한 金融資産保有의 相對的 크기는 「農家經濟調査」에서는 1964년의 5.5%規模로부터 1971년의 13.0% 수준 1976년의 16.8%수준으로 비교적 급속한 擴大를 보아 왔으며, 農協調査에서도 1964년의 3.5%수준으로부터 1971년에는 16.7%로 크게 上昇되어 왔다. 이러한 金融資産比重擴大의 傾向에 관해 한가지 添言해 두어야 할 점은 農水産部에 있어서의 1976년의 農家資産속의 金融資産의 比重에 관해서이다. 이러한 數字的 比率(3.0%)의 低下는 金融資産擴大傾向에 대한 反對現象으로 보기도는 農家實物資産의 價値가 매우 급속히 증가된 결과 逆으로 나타난 現象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觀察해 온 바와 같이 農家の 金融資産保有가 農家資産全體 또는 所得과의 相對的인 크기에서 꾸준히 擴大趨勢를 보여왔다는 사실은 否認할 수 없으나 그 擴大 내지 多樣化의 速度는 매우 완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本調査에서 調査對象期間인 1976年 7月에서 1977年 6月간의 金融資産의 增減을 設問속에 넣었던 바 거의 대부분의 農家가 空欄(無變動)이어서 別途의 結果表를 作成할 必要가 없을 정도였음이 이 事實을 말해준다.

위의 觀察에서 얻은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農家の 金融資産保有規模는 지속적으로 擴大되어 왔으며, 그 構成도 貸付金契를 爲主로 한 종래의 類型으로부터 預金, 出資金 등의 健全한 方向으로 移行하고 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農家の 金融資産에 대한 認識이나 積極的인 選擇現象이 빈번히 나타나는 段階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農協, 마을 金庫 등 地域內金融去來를 제외한 獨自的 金融去來는 全無에 가까운 實情에 있다.

IV. 農家負債 및 借入金의 構造

1. 農家負債스토크의 現況

農家は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金融資産을 保有活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金融負債를 지니며 借入을 행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調査基準時點인 1977年 6月 末日 現在 農家가 지닌 스토크로서의 借入殘高를 「農家負債」로 부르며, 調査對象期間인 1976年 7月~1977年 6月간에 農家가 借入金の 플로우 金額을 農家借入金으로 불러 區分하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農家負債는 앞에서 본 農家金融資産에 바로 對應될 수 있는 스토크概念이다.

本調査에서 農家負債殘高이외에 과거 1년간의 借入金을 따로 다룬 것은 兩者를 比較함으로써 最近에 있어서의 農家信用構造變動에 대한 追加的 情報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하의 分析에서는 우리의 調査結果를 주로 農協의 1964年 및 1971年 調査結果와 對比시키면서 農家負債의 性格變遷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農家負債保有의 概況을 보인 것이 <表 6>이다. 標本農家중 多少間의 負債를 保有하고 있는 農家數는 전체의 86.7%이며 戶當負債件數는 全農家戶當平均 1.99件, 負債保有農家戶當平均 2.29件에 이르고 있다. 이를 農協의 1,2次信用調査(1964年 및 1971年) 結果와 비교하면 負債農家の 比率는 兩調査의 92~93%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나, 2次信用調査에 비해 戶當負債件數는 1件이상 많은 셈이다.

負債保有農家の 比率를 耕地規模別로 보면 零細農과 大農階層에 있어 保有農家比率이 낮으며 小·中農層의 그것이 높은데 비해, 農家戶當負債件數에 있어서는 規模가 키질수록 줄어드는 傾向이 엿보인다.

<表 6> 耕地規模別 負債保有農家戶數比率

	平均(또는 合計)	0.5 町步 未 滿	0.5~1.0 町 步	1.0~1.5 町 步	1.5~2.0 町 步	2.0 町步 以 上
本調査(1977. 6)						
標本農家數(A)	98	18	38	25	12	5
負債保有農家數(B)	85	12	35	24	11	3
負債件數(C)	195	35	78	54	23	5
負債農家比率 B/A(%)	86.7	66.7	92.1	96.0	91.7	60.0
農家當負債件數 C/A	1.99	1.94	2.05	2.16	1.92	1.00
負債農家當負債件數 C/B	2.29	2.92	2.23	2.25	2.09	1.67
農協 2次信用調査 (1971. 7)						
負債保有農家比率(%)	93.2	83.9	93.8	98.9		99.0
農家當負債件數	1.11	1.00	1.13	1.15		1.26
負債農家當負債件數	1.19	1.19	1.20	1.16		1.27
農協 1次信用調査 (1964. 7)						
負債保有農家比率(%)	92.3	91.0	92.7	93.2	94.0	91.0

다음으로 <表 7>에서 農家負債保有의 規模를 살펴보기로 하자. 戶當平均負債保有額은 負債保有農家基準으로는 308千원, 全農家基準으로는 267千원에 달했으며, 元金(現金·現物)의 比率는 65:35가량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農家階層別로 나누어 보면 戶當負債額이 가장 많은 것은 1.5~2.0町步層으로서 負債保有農家戶當平均 415千원 全農家戶當平均 380千원이며 다음이 1.0~1.5町步層의 各各 322千원 및 309千원이다. 반대로 負債保有額이 가장 작은 階層으로는 2.0町步以上の 大農層에서 保有農家戶當 153千원 全農家戶當 92千원에 불

〈表 7〉 耕地規模別 農家負債保有(戶當平均)

	平 均	0.5 町步 未 滿	0.5~1.0 町 步	1.0~1.5 町 步	1.5~2.0 町 步	2.0 町步 以 上
負債保有農戶當 計	307,576 (100.0)	267,167 (100.0)	291,000 (100.0)	322,208 (100.0)	414,545 (100.0)	153,333 (100.0)
現 金	201,200 (65.4)	188,417 (70.5)	166,143 (57.1)	202,333 (62.8)	346,364 (83.6)	120,000 (78.3)
現 物	106,376 (34.6)	78,750 (29.5)	124,857 (42.9)	119,875 (37.2)	68,182 (16.4)	33,333 (21.7)
農 家 戶 當 計	266,766	178,111	268,026	309,320	380,000	92,000
現 金	174,501	125,611	153,026	194,240	317,500	72,000
現 物	92,265	52,500	115,000	115,080	62,500	20,000

과하며, 다음이 0.5町步未滿層의 각각 267千원 및 178千원의 順을 이루고 있다.

農家階層別 負債保有規模의 構成은 앞서 본 바(〈表 6〉) 負債保有農家の 比率과 一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零細農 및 大農層보다는 中間規模의 農家に 있어 負債保有率 및 平均保有額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負債保有率 및 水準의 階層間 差異를 가져오는 要因을 다루기에 앞서 調査에서 나타난 事實들에 대한 記述을 좀더 계속하기로 하자. 〈表 8〉은 이번의 調査結果를 農協의 1,2次信用 調査結果와 對比함으로써 農家負債保有構成의 時間的 變動에 接近해 보기 위해서 作成된 것이다.

여기서는 比較의 指標로서 負債의 現金·現物別 構成, 農家資産, 農家金融資産 그리고 農家所得과의 相對的 크기 등 4가지를 택했으며, 全階層平均이외에 耕地規模別로 農家를 區分해서 보았다. 農協의 大規模調査에서는 위의 指標들이 모두 調査過程에서 集計될 수 있었으나 本調査에서는 農家資産 및 所得을 獨自的으로 集計하지 못했으므로 改善의 方法으로 1976年度의 農家經濟調査의 全國平均値를 代用해서 參考的으로 援用하였으며 그 數値는 表에서 괄호속에 묶어서 區別하였다. 또 세가지 調査들간에 農家の 階層區分은 약간씩 相異하나 그로 인한 比較上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負債의 形態別 構成에서 볼 때 1964年은 農協 1次信用調査에서 44%수준에 불과했던 現金負債의 比率이 1971年에 와서는 60%에 이르렀으며, 本調査에서는 65%선에 이르고 있어 現物負債의 比重이 크게 低下된 것을 볼 수 있다. 現物負債의 內容에 관해서 이들 調査에서는 明示的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보는 用途區分과 관련시켜 볼 때 1964年의 경우 小細農의 現物負債率이 높으며 消費的 支出 및 其他支出(教育費, 負債償還 등의 用途

〈表 8〉 農家戶當負債保有의 比較

	負債保有額 (A)(원)	構成비(%)		農家資産保有額 (B)(원)	金融資産保有額 (C)(원)	農家所得 (D)(원)	A/B (%)	A/C (%)	A/D (%)
		現金	現物						
本 調 査(1977.6)									
平 均	266,766	(65.4)	(34.6)	(6,299,282)	199,520	(156,254)	(4.2)	133.7	(23.1)
0.5町步未滿	178,111	(70.5)	(29.5)	(2,784,269)	66,888	(670,191)	(6.5)	266.3	(26.6)
0.5~1.0町步	268,026	(57.1)	(42.9)	(4,983,145)	205,026	(978,223)	(5.4)	130.7	(27.4)
1.0~1.5町步	309,320	(62.8)	(37.2)	(7,246,145)	209,000	(1,318,888)	(4.3)	148.0	(23.4)
1.5~2.0町步	380,000	(83.6)	(16.4)	(10,332,728)	347,582	(1,697,316)	(3.7)	109.3	(22.4)
2.0町步以上	92,000	(78.3)	(21.7)	(16,393,314)	197,200	(2,523,302)	(0.6)	46.7	(3.6)
農協2次信用調査(1971.7)									
平 均	29,508	(60.0)	(40.0)	1,033,058	40,697	243,528	2.9	72.5	12.1
0.5町步未滿	17,653	(60.4)	(39.6)	530,995	26,578	129,878	3.3	66.4	13.6
0.5~1.0町步	30,216	(53.2)	(46.8)	886,991	29,016	226,497	3.4	104.1	13.3
1.0~2.0町步	32,001	(64.0)	(36.0)	1,393,210	40,765	307,689	2.3	78.5	10.4
2.0町步以上	59,258	(67.1)	(32.9)	2,764,590	154,858	467,832	2.1	38.3	12.7
農協1次信用調査(1964.7)									
平 均	19,807	(43.7)	(56.3)	412,202	3,153	90,501	4.8	628.2	21.9
0.3町步未滿	9,211	(40.5)	(59.5)	86,717	1,752	31,613	10.6	525.7	29.1
0.3~0.5町步	12,371	(43.1)	(56.9)	167,204	1,732	51,245	7.4	714.3	24.1
0.5~1.0町步	18,838	(40.2)	(59.8)	297,642	1,814	73,631	6.3	1038.5	25.6
1.0~1.5町步	22,249	(43.7)	(56.3)	516,178	4,325	115,694	4.3	514.4	19.2
1.5~2.0町步	31,957	(37.8)	(62.2)	806,317	3,477	164,346	4.0	919.1	19.4
2.0~2.5町步	36,078	(41.7)	(58.3)	1,225,933	6,913	191,296	2.9	52.2	18.9
2.5~3.0町步	32,938	(84.0)	(16.0)	1,493,594	8,234	209,319	2.2	400.0	15.7
3.0~3.5町步	56,340	(63.4)	(36.6)	1,941,311	25,214	265,086	2.9	223.4	21.3
3.5~4.0町步	24,566	(49.5)	(50.5)	967,901	1,050	192,939	2.5	2339.6	12.7
4.0町步以上	113,146	(84.2)	(15.8)	2,653,615	47,168	687,662	4.3	239.9	16.5

註：本調査의 農家資産과 農家所得額은 1976年 「農家經濟調査」의 全國平均値로 代用한 것임.

가 포함될)의 比率이 높은 件을 勘案한다면 食糧用糧穀이 큰 比重을 차지했던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에 비해 最近으로 올수록 全階層平均뿐 아니라 특히 小細農層의 現物負債比率이 낮아지는 現象은 食糧事情의 好轉 및 農家經濟의 改善에 따라 食糧用糧穀負債가 아니라 肥料農業등의 營農資材의 外上供給과 肥育目的의 韓牛飼育에서 보는 資本的 支出用途의 負債가 主流를 이루는 등의 현저한 內容上의 變化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보는 農家負債의 現金化傾向은 앞서 본 農家金融資産의 持續的 擴大와 더불어 볼 때 農家經濟의 貨幣化現象이 最近 10여년간에 상당히 進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로 볼 수 있다.

다음에 本調査에서 얻는 農家金融資産保有額과 負債保有額의 크기를 比較해 보면 戶當平均負債保有額은 金融資産保有額의 1.3배에 이르고 있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上層으로 갈

수록 그 比率은 점차 낮아져가는 規則的인 傾向을 보여준다. 즉 農家戶當 金融資產保有額에 비한 負債保有額의 크기는 0.5町步未滿農家層에서 2.7倍로서 가장 높으며 小農, 中農層으로 갈수록 낮아져 2.0町步以上の 大農層에서는 불과 0.5倍에 머물고 있다. 이 調查結果를 이전의 農協調査와 對比해 보면, 1964年의 1次信用調査때의 農家負債保有額은 全階層平均으로 볼 때 農家金融資產保有額의 6.3倍로서 매우 不健全한 狀態에 있었던 것이 1971年의 2次信用調査結果에 있어서는 0.7倍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農家戶當負債의 金融資產保有에 대한 倍率이 1964年의 平均 6.3倍에서 1971年의 0.7倍, 1977年에 1.3倍로 변동되어 온 事實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數字의 消長만을 가지고 好轉 또는 惡化라는 性急한 結論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며 뒤에서 보는 補完的인 分析을 거친 뒤로 結論을 留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여기서 指摘해 두고자 하는 것은 그간의 農家經濟事情의 推移를 勘案할 때 1964年에서 71年으로의 變動은 적어도 農家金融構造의 好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971年에서 77年의 變動은 비록 負債·金融資產比率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1971年에 있어서 農家の 利用可能한 制度金融組織의 信用供給規模가 77年에 비해 상당히 制約되어 있었던 事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農家經濟調査」의 全國平均値를 援用한 農家負債保有額의 農家資產에 대한 比率은 1964年의 5%수준에서 71年의 약 3%, 77年의 약 4%로 변동되어 왔다. 農家階層別로 볼 때 零細農의 경우 1964年에 있어 負債保有額이 全資產의 10%에 이르도록 높았던 것이 71年과 77年에 와서는 상당히 낮아졌으나 어느 階層의 農家를 不問하고 負債·資產比率은 비교적 好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農家の 年間所得에 대한 負債殘高의 比率과 관련시켜 보면 負債資產比率의 好轉은 土地資產을 중심으로 한 農家資產의 增價가 주요한 決定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表 9〉는 本調査에서 얻은 農家負債의 借入處別 構成을 農協의 1, 2次信用調査結果와 對比시켜 본 것이다. 세차례의 調査에서 채용된 借入處別 區分基準은 대체로 一致하나, 農協 1次調査에서는 親戚·親知를 獨立된 項目으로 設定하고 있으며 本調査에서는 이전의 農協 調査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借入處로서 마을金庫와 信用組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親戚·親知는 그밖의 調査에서는 農民등에 포함시켜 보더라도 대체로 무방할 것이며 마을金庫와 信用組合은 비교적 最近에 登場한 地域金融組織이며 아직은 그 活動水準에 있어 地域差가 현저한 形편이다.

먼저 今般의 調査에서 얻은 結果를 보면 負債件數에 있어서나 戶當平均負債殘高로 보나

〈表 9〉 借入處別 農家負債의 構成(戶當平均)

	本 調 査(1977.6)				農協 2次信用調査(1971.7)		農協 1次信用調査(1964.7)	
	負債件數	農 家 數	農家戶當 平均負債		農家戶當 平均負債		農家戶當 平均負債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원)	(%)	(원)	(%)	(원)	(%)	
農 協	125	98	151,416	(56.8)	9,788	(33.2)	4,789	(24.2)
其 他 金 融 機 關	—	—	—	—	154	(0.5)	188	(1.0)
마 을 金 庫	1	1	250	(0.1)	—	—	—	—
信 用 組 合	4	3	7,838	(2.9)	—	—	—	—
商 人	1	1	299	(0.1)	1,607	(5.4)	830	(4.2)
貸 金 業 者	—	—	—	—	510	(1.7)	260	(1.3)
農 民	57	51	99,693	(37.4)	13,887	(47.1)	8,298	(41.9)
政 府	7	7	7,270	(2.7)	—	—	895	(4.5)
契	—	—	—	—	2,377	(8.1)	658	(3.3)
親 戚 · 親 知	—	—	—	—	—	—	3,890	(19.6)
其 他	—	—	—	—	1,185	(4.0)	—	—
合 計	195		266,766	(100.0)	29,508	(100.0)	19,807	(100.0)

農協과 農民 등 두 借入處의 比重이 壓倒的이며 그밖의 借入處들에 대한 依存度는 극히 낮은 점이 特徵的이다. 즉 農協負債는 件數에 있어 전체의 64.1%, 金額에 있어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他農民에 대한 負債는 件數에서 29.2%, 金額에서 37.4%를 차지하고 있어, 이 兩者를 합치면 件數로는 93.3%, 金額으로는 무려 94.2%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政府로부터의 韓牛購入資金, 信用組合貸出이 僅少한 比重을 차지하며 마을金庫와 商人으로부터의 負債가 각각 1件씩 分布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留意해야 할 점은 農民으로부터의 聽取調査에 있어 언제나 그러한 바와 같이 商人, 貸金業者 등으로부터의 負債가 農民간의 負債로 포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可能性을 어느 정도 勘案하더라도 商人 또는 高利貸業者로부터의 借入의 比重이 극히 낮다는 사실이 注目되어야 할 側面이라고 하겠다.

위의 借入處別 構成을 農協의 1,2次信用調査結果와 對比해 볼 때 가장 特徵的인 점은 農協에 대한 依存度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즉 農協負債의 農家戶當負債殘高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64년의 24.2%에서 1971년의 33.2%로, 그리고 今般의 調査에서는 56.8%로 크게 높아지고 있어, 農協을 통한 制度金融의 農家에 대한 資金供給의 源泉으로서의 役割이 크게 擴大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商人 및 貸金業者로부터의 負債殘高는 1964년의 5.5%, 1971년의 7.1%로부터 今般의 調査에서는 크게 낮아졌으며, 農民간의 負債(親戚 · 親知를 포함한)도 1964년에 전체 金額의 61.5%에서 1971년의 47.1%, 1977년의 37.4%

로 그 比重이 급속히 低下되어가고 있다. 그 밖에 傳統的으로 우리나라의 農村金融에 있어 상당한 比重을 차지해 왔던 契로부터의 借入도 크게 低下되고 있는 점이 印象의이다. 최근의 農村에 있어 親睦契, 相助契 등 목돈이나 資產形成의 動機와는 別途의 모임을 제외한 物品契, 貯蓄契 등 비교적 小規模이지만 經濟的 動機에 根據하는 契가 상당히 減少하고 있는 現象은 家電 등 耐久消費財의 割賦販賣組織의 浸透, 農民의 現金 및 流動性保有的 增加 등에 따른 契의 繁雜 내지 無用化 등의 要因과 관련되는 現象으로 볼 수 있지만, 今般의 調査에서도 契의 農村金融組織으로서의 重要性의 低下경향이 두드러지게 進展되고 있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農家負債의 借入處構成에 있어서의 階層差를 검토해 보고자 만든 것이 <表 10>이다. 耕地規模別 農家負債의 借入處構成比의 數字를 볼 때 1.5町步以上の 中農上層으로부터 大農으로 갈수록 農協 등 公共機關으로부터의 負債에 대한 依存度가 높아져 가는데 비해 小農으로 갈수록 農民으로부터의 私金融에 의한 依存度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大農層은 負債總額이 훨씬 작아 他人資本에 의한 依存度가 낮아서 制度金融組織으로부터 自身에게 配定된 信用만큼을 획득하면 더 이상 私의 他人資本에 依存할 必要가 없게되기 때문에 結果的으로는 위에서 본 借入處別 構成의 階層間의 差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보아 同僚農民間이라고 할지라도 私金融의 利率負擔이 公共 또는 制度金融의 그것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점을 勘案한다면 金融面에 있어서도 小農層이 相對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 같다.

<表 10> 耕地規模別 借入處別 農家負債(戶當平均)

(單位: 원, %)

		平 均	0.5 町步 未 滿	0.5~1.0 町 步	1.0~1.5 町 步	1.5~2.0 町 步	2.0 町步 以 上
農	協	151,416 (56.8)	103,304 (58.0)	129,189 (48.2)	162,702 (52.6)	289,180 (76.1)	76,360 (83.0)
마	을 金 庫	250 (0.1)	—	—	619 (0.2)	—	—
信	用 組 合	7,838 (2.9)	—	16,350 (6.1)	7,114 (2.3)	—	—
商	人	299 (0.1)	—	804 (0.3)	—	—	—
農	民	99,693 (37.4)	69,285 (38.9)	116,859 (43.6)	125,893 (40.7)	90,820 (23.9)	—
政	府	7,270 (2.7)	5,522 (3.1)	4,824 (1.8)	12,992 (4.2)	—	15,640 (17.0)
合	計	266,766 (100.0)	178,111 (100.0)	268,026 (100.0)	309,320 (100.0)	380,000 (100.0)	92,000 (100.0)

農家負債의 또 하나의 側面으로서 借入處 및 發生時期別 構成을 觀察해 본 것이 <表 11>이다. 먼저 이번의 調査結果부터 보면 農家戶當平均負債殘高의 77.0%가 當年上半期중에 發生한 것이며, 19.9%가 前年度에, 그리고 3.1%만이 前前年度 및 그 이전에 發生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農家負債는 1年을 週期로 하여 返濟되어가고 또 새로이 年度初에 發生해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中長期農家與信이 극히 微微한 現在의 信用構造 아래서는 대부분 短期的・季節的 資金需要에 充當하기 위한 1年以內 또는 生産物의 收穫期를 返濟時期로 하는 金融에 있어서는 延滯率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長期화된 延滯負債의 比率은 어떤 借入表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農民間의 私的貸借관계에 있어 약간 長期화된 負債가 殘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크기는 거의 問題視되지 않을 정도일 뿐이다.

<表 11> 借入處別 負債發生時期別 農家負債(戶當平均) (單位: 원, %)

	本 調 査				計
	1974年이전	1975年	1976年	1977年 1~6月	
農 協	1,514(1.0)	2,725(1.8)	17,262(11.4)	129,915 (85.8)	151,416(100.0)
其 他 金 融 機 關	—	—	—	—	—
마 을 金 庫	—	—	—	250(100.0)	250(100.0)
信 用 組 合	—	—	847(10.8)	6,991 (89.2)	7,838(100.0)
商 人	—	—	—	299(100.0)	299(100.0)
貸 金 業 者	—	—	—	—	—
農 民 府	3,888(3.9)	—	32,001(32.1)	63,804 (64.0)	99,693(100.0)
政 府	—	—	3,097(42.6)	4,173 (57.4)	7,270(100.0)
契	—	—	—	—	—
其 他	—	—	—	—	—
合 計	5,402(2.1)	2,725(1.0)	53,207(19.9)	205,432 (77.0)	266,766(100.0)

	農 協 2 次 信 用 調 査				計
	1968年이전	1969年	1970年	1971年 1~7月	
農 協	4,688(47.9)	717 (7.3)	1,567(16.0)	2,816(28.8)	9,788(100.0)
其 他 金 融 機 關	87(56.5)	—	67(43.5)	—	154(100.0)
마 을 金 庫	—	—	—	—	—
信 用 組 合	—	—	—	—	—
商 人	885(55.1)	53 (3.3)	126 (7.9)	543(33.8)	1,607(100.0)
貸 金 業 者	42 (8.2)	66(12.9)	185(36.3)	217(42.5)	510(100.0)
農 民 府	4,880(35.1)	404 (2.9)	3,632(26.1)	4,971(35.8)	13,887(100.0)
政 府	—	—	—	—	—
契	1,109(46.7)	34 (1.4)	962(40.5)	271(11.4)	2,376(100.0)
其 他	820(69.1)	32 (2.7)	170(14.3)	164(13.8)	1,186(100.0)
合 計	12,511(42.4)	1,306 (4.5)	6,709(22.7)	8,982(30.4)	29,508(100.0)

위의 結果를 比較에 援用 가능한 唯一한 以前의 調査인 農協의 2次信用調査(1971年度)와 對比시켜 보면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1971年 調査의 경우 農家戶當負債殘高 가운데서 當年 1月~7月간에 새로이 發生한 것은 전체의 30.4%, 前年度중의 것이 22.7%인데 비해 前前年度의 것이 4.5%, 그리고 3年이전에 發生했던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4%의 構成을 보이고 있다. 그 時期에 있어 現在보다 中長期信用供與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보편 이는 延滯負債의 比重이 매우 높았던 것임을 反映하는 數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負債發生時期의 構成을 借入處別로 區分해서 볼 때 그 性格은 한층 明白히 나타난다. 發生 후 3年을 經過한(1968年이전에 發生된) 長期負債의 構成비가 異例의으로 가장 낮은 것은 一般的으로 高利로 볼 수 있는 貸金業者로부터의 負債이며 비교적 利率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 農協 및 其他金融機關으로부터의 負債殘高는 平均을 훨씬 上廻하는 수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現金需要에 逼迫한 農民이 金利負擔을 勘案하여 負債償還의 優先位를 결정한 結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農家借入의 構造

여기서는 약간 焦點을 바꾸어 農家の 스톡負債殘高대신 調査對象 期間 1年間(이번 調査에서는 1976年 7月~1977年 6月間)의 借入金의 플로우額의 크기와 內容을 觀察함으로써 약간의 補完的인 事實을 把握해 보고자 한다.

먼저 <表 12>는 1976年 7月~1977年 6月の 滿 1 年間に 標本農家가 起債한 戶當平均 借入額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본 <表 7>과 對比할 때 全農家戶當平均額은 負債保有가 266,766 원이며 最近 1年間の 借入額이 266,265 원으로서 매우 비슷한 水準에 있다. 이러한 現象은 <表 11>에서 負債發生時期가 거의 대부분 昨・今年의 것이리는 점과 관련시켜 볼 때 당연한 結果이기도 하다. 借入의 現金・現物構成比는 負債殘高의 그것에 비해 僅少하나마 現金의 比率이 높아서 67.8 : 32.2를 이루고 있다.

調査에서 얻어진 農家戶當借入額과 負債殘高와의 크기(前者는 後者の 99.8%)를 對比해 보면, 1971年의 農協 2次信用調査에서는 戶當借入額 28,940 원 負債保有殘高 29,508 원으로

<表 12> 耕地規模別 農家借入金(戶當平均)(1976.7~1977.6) (單位: 원, %)

	平 均	0.5 町步 未 滿	0.5~1.0 町 步	1.0~1.5 町 步	1.5~2.0 町 步	2.0 町步 以 上
農 家 戶 當 計	266,265 (100.0)	182,944 (100.0)	220,605 (100.0)	375,560 (100.0)	350,833 (100.0)	157,800 (100.0)
現 金	180,643 (67.8)	130,500 (71.3)	139,395 (63.2)	229,480 (61.1)	313,333 (89.3)	112,000 (71.0)
現 物	85,622 (32.2)	52,444 (28.7)	81,210 (36.8)	146,080 (38.9)	37,500 (10.7)	45,800 (29.0)

서 後者에 대한 前者의 比率은 98.1%였으며, 1964年の 農協調査에서는 戶當借入額 14,186 원 負債保有殘高 19,807원으로서 그 比率은 71.6%에 각각 이르고 있어 兩者의 크기는 한 층 接近해 오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結果는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短期金融의 比重이 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것에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延滯의 減少 및 短期政策金融의 規模의 擴大가 점차적으로나마 진전되어 온 데 基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借入金의 用途 내지 目的은 農家金融行爲의 性格에 있어 매우 重要한 側面을 이루는 것이다. <表 13>은 農家借入의 構成을 農業經營費, 資本的 支出, 消費的 支出 그리

<表 13> 耕地規模別 用途別 農家借入金의 比較(戶當平均) (單位: 원, %)

	農家戶當 借入金	農業經營費 ¹⁾		資本的 支出 ²⁾		消費的 支出 ³⁾		其他支出 ⁴⁾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本 調 査(1976.7~77.6)									
平 均	266,265	47,129	(17.7)	133,399	(50.1)	33,283	(12.5)	52,454	(19.7)
0.5 町 步 未 滿	182,944	38,601	(21.2)	83,240	(45.5)	35,308	(19.3)	25,795	(14.1)
0.5~1.0 町 步	220,605	46,327	(21.0)	113,832	(51.6)	22,281	(10.1)	38,165	(17.3)
1.0~1.5 町 步	375,560	72,483	(19.3)	208,060	(55.4)	36,805	(9.8)	58,212	(15.5)
1.5~2.0 町 步	350,833	15,787	(4.5)	155,068	(44.2)	50,871	(14.5)	129,107	(36.8)
2.0 町 步 以 上	157,800	32,822	(20.8)	35,032	(22.2)	50,023	(31.7)	39,923	(25.3)
農協 2次信用調査(1970.8~71.7)									
平 均	28,940	5,231	(18.1)	8,809	(30.4)	10,101	(34.9)	4,799	(16.6)
0.5 町 步 未 滿	17,677	2,268	(12.8)	4,762	(26.9)	8,940	(50.6)	1,707	(9.7)
0.5~1.0 町 步	26,194	3,858	(14.7)	6,823	(26.0)	10,337	(39.5)	5,176	(19.8)
1.0~2.0 町 步	36,174	6,343	(17.5)	12,504	(34.6)	10,136	(28.0)	7,191	(19.9)
2.0 町 步 以 上	52,608	18,374	(34.9)	17,449	(33.2)	13,107	(24.9)	3,678	(7.0)
農協 1次信用調査(1963.8~64.7)									
平 均	14,186	3,358	(23.7)	2,659	(18.7)	8,169	(57.6)		
0.3 町 步 未 滿	6,250	1,037	(16.6)	229	(3.7)	4,984	(79.7)		
0.3~0.5 町 步	8,147	1,326	(16.3)	1,433	(17.6)	5,388	(66.1)		
0.5~1.0 町 步	14,291	3,301	(21.2)	2,788	(19.5)	8,472	(59.3)		
1.0~1.5 町 步	16,829	3,873	(23.0)	3,520	(20.9)	9,436	(56.1)		
1.5~2.0 町 步	19,990	6,696	(33.5)	4,317	(21.6)	8,977	(44.9)		
2.0~2.5 町 步	22,994	6,294	(27.4)	3,500	(15.2)	13,200	(57.4)		
2.5~3.0 町 步	31,480	9,092	(28.9)	9,424	(29.9)	12,965	(41.2)		
3.0~3.5 町 步	18,995	6,594	(34.7)	5,286	(27.8)	7,115	(37.5)		
3.5~4.0 町 步	23,651	8,730	(36.9)	1,000	(4.2)	13,921	(58.9)		
4.0 町 步 以 上	108,137	41,808	(38.7)	5,429	(5.0)	60,900	(56.3)		

註: 1) 農業經營費에는 種子, 肥料, 農藥, 農具, 飼料, 勞賃費 등이 포함됨.

2) 資本的 支出에는 土地購入開墾, 土地改良灌排水, 大家畜購入, 大農機具購入, 建物新築改良 등이 포함됨.

3) 消費的 支出에는 家計費, 冠婚喪祭費, 耐久消費財購入 등이 포함됨.

4) 其他支出에는 教育費, 負債償還, 金融資產買入, 事業資金 등이 포함됨.

고 其他支出 등 네 가지로 區分해서 耕地規模別로 나누어 본 것이다. 먼저 우리의 調査에 나타난 農家戶當平均 借入金의 用途別 構成은 種子, 肥料, 農藥, 農具, 飼料費 및 雇傭勞賃支拂 등에 充當된 農業經營費가 전체의 17.7%, 土地의 購入開墾, 土地改良灌排水施設, 大家畜 및 大農機具購入, 建物の 新築改良 등 固定資産의 增加를 이루는 資本的 支出이 50.1%, 家計費, 冠婚喪祭費, 耐久消費財 등 消費的 支出이 12.5%, 그리고 教育費, 負債償還, 金融資産 購入 및 兼業資金을 포함하는 其他支出이 19.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調査票에 따르면 教育費가 其他支出중에서는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農家借入金의 用途構成을 耕地規模別로 볼 때 근소한 不規則性을 例外로 한다면 一定한 方向으로서의 階層差와 같은 패턴을 發見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消費的 支出의 比重은 細小農層에서 오히려 中大農層보다 낮으며 農業經營費支出의 構成比는 어느 耕地規模層에 있어서나 20% 內外로 극히 安定的임을 볼 수 있다.

위의 結果를 農協의 이전 調査와 比較해서 借入金의 用途構成에 있어서의 變動을 밝혀보기로 하자. 다만 한가지 比較에 不便한 資料事情은 農協 1次調査의 用途區分에서 消費的 支出과 其他支出이 分離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其他支出의 대부분이 教育費와 舊債償還에 充當되어 온 것임을 勘案하면 消費的 支出과 더불어 消費目的의 金融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이에 반해 農業經營費와 資本的 支出의 두 項目을 합쳐 生産目的의 金融에 속하는 것으로 兩大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生産과 消費 兩大目的으로 統合區分할 때 本調査에서 얻은 全階層戶當平均借入의 構成은 67.8 : 32.2인데 비해, 農協의 1971年 調査에서의 그것은 48.5 : 51.5이며 1964年 調査의 그것은 42.4 : 57.6을 각각 보여주고 있어 時間의 經過에 따라 農家借入중 生産目的의 比重이 점차 擴大되어 오는 반면 消費金融의 性格은 크게 後退하고 있음을 端的으로 알 수 있다.

農家借入金의 用途構成을 農家階層別로 볼 때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本調査에서는 用途의 階層間差를 發見하기 어려운 데에 비해, 이전의 農協調査에서는 뚜렷한 階層類型을 發見할 수 있다. 즉 1971年 調査의 경우 農業經營費와 資本的 支出을 합친 生産的 用途의 借入이, 전체층平均은 總額의 48.5%인데 비해 0.5町步未滿農家平均 39.7%, 0.5~1.0町步農家平均 40.7%, 1.0~2.0町步農家平均 42.1%, 2.0町步以上農家平均 68.1%로서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生産金融의 比重이 높아지는 反面 零細農으로 갈수록 消費金融의 性格이 짙어져가는 規則性을 보여준다. 또 1964年 調査에 있어서도 全階層平均으로 본 生産目的의 金融의 比重이 42.4%인데 비해 0.3町步未滿 農家層의 그것은 20.3%, 0.3~0.5町步農家は 33.9%, 2.5~3.0町步農家の 경우 58.8%, 3.0~3.5町步農家の 경우 62.5%로서 區分階層이 細

分되어 있는 데에 따른 약간의 不規則性은 있으나 全般的으로는 經營規模가 커짐에 따라 消費目的보다는 生産目的 借入의 比重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觀察을 土臺로 하면 農家信用의 消費金融的 性格은 최근들어 크게 後退한 대신 生産目的의 借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게 擴大되었으며, 특히 小細農層에 있어 家計費充當을 위한 借入이 크게 줄어든 것은 食糧을 중심으로 한 農民의 最低生活面에서의 현저한 改善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히려 中大農層을 중심으로 한 消費的 支出目的의 借入의 比重增大는 2次的 消費支出에 대한 農村上層의 要求라는 새로운 生活패턴의 登場을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14〉는 農家戶當平均 借入金의 借入處別 構成을 보인 것이다. 本調査의 結果가 金額 基準으로 볼 때 전체의 55.3%가 農協, 39.3%가 農民으로 兩者가 借入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앞서 戶當平均負債殘高에서 본 結果와 一致한다. 이에 비해 1971年의 農協 調査에서 나타난 借入金의 源泉別構成은 農民이 전체의 56.0%로 가장 많고 農協이 26.2%로서 다음을 이루며 그밖에 商人 7.0%, 契 4.8% 등을 이루고 있어 制度金融보다는 私金融의 比重이 壓倒的인 比重을 지닌 對照的인 類型을 보여주고 있다. 私金融源의 構成에 있어서도 1971年調査에서 商人, 契 등 農民個人이외의 源泉이 아직도 약간의 比重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今般의 調査에서는 이들의 役割이 크게 弱화되고 있는 점이 注目된다.

마지막으로 農家借入金의 利率構成을 〈表 15〉을 통해서 觀察하기로 하자. 農家借入에 따르는 金利負擔은 인플레이션의 進行을 포함한 經濟全般的의 興件, 農業에 대한 政策金融의

〈表 14〉 借入處別 農家借入金(戶當平均)

	本 調 査(1976.7~77.6)				農協 2次信用調査 (1970.8~71.7)	
	借 入 件 數		農家戶當平均借入額		農家戶當平均借入額	
	件 數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農 協	116	(60.1)	147,143	(55.3)	7,589	(26.2)
其 他 金 融 機 關	—	—	—	—	247	(0.9)
다 울 金 庫	1	(0.5)	250	(0.1)	—	—
信 用 組 合	3	(1.6)	6,991	(2.6)	—	—
商 人	1	(0.5)	299	(0.1)	2,039	(7.0)
貸 金 業	—	—	—	—	598	(2.1)
農 民	66	(34.2)	104,662	(39.3)	16,215	(56.0)
政 府	6	(3.1)	6,920	(2.6)	—	—
契	—	—	—	—	1,392	(4.8)
其 他	—	—	—	—	860	(3.0)
合 計	193	(100.0)	266,265	(100.0)	28,940	(100.0)

<表 15> 利率別 農家借入金 構成比較(戶當平均)

	本 調 査(1976.7~77.6)				農協 2次信用調査 (1970.8~71.7)	
	借 入 件 數		農家戶當平均借入金		農家戶當平均借入金	
	件 數	構成比 ¹⁾	金 額	構成比 ¹⁾	金 額	構成比
無 利 子	6	(3.4)	3,195	(1.5)	} 2,208	(7.6)
10% 未 滿	36	(20.7)	23,964	(11.3)		
10~20%	34	(19.5)	51,389	(24.3)	10,985	(38.0)
20~30%	60	(34.5)	85,205	(40.3)	1,765	(6.1)
30~40%	10	(5.8)	12,515	(5.9)	6,053	(20.9)
40~50%	10	(5.8)	25,029	(11.8)	2,032	(10.1)
50%以上	18	(10.3)	10,384	(4.9)	4,997	(17.3)
其 他	19	(—)	54,584	(—)	—	—
合 計	193	(100.0)	266,265	(100.0)	28,940	(100.0)

註: 1) 構成比는 其他를 제외한 借入에 대한 것임.

實施程度, 長短期金融의 構成, 延滯의 存在與否 등 여러가지 條件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高金利가 結果的으로 農家經營을 壓迫하는 要因으로 作用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效果를 미치는 것이다. 本調査에서는 金額基準으로 12.8%의 借入金이 無利子 내지 年利 10%未滿의 利率條件으로 借入된 것이며 年利 30%未滿의 借入金은 전체의 77.4%에 이르고 있다. 한편 年利 50% 이상의 借入金은 전체의 4.9%에 불과함으로써 利率構成은 政策金融의 比重이 큰 것을 主因으로 해서 全般的으로는 安定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 점은 利率區分에 있어서의 其他項目에 대한 說明이다. 이것은 調査票위에서 韓牛의 배내기 飼育의 경우 元金에 해당하는 金額을 現物借入으로 計上했을 뿐 그 利率을 따로 算定하지 않은 데서 나온 項目이다. 그 利率推定의 擬制計算이 恣意的으로 될 憂慮가 많아 其他로 設定해서 利率構成의 比率計算에서는 除하기로 하였다.

위의 結果를 援用 가능한 農協의 2次 信用調査結果와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1971年調査에서 年利 10%未滿의 借入金은 전체借入額의 7.6%, 30%未滿의 그것은 51.7%로서 전체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利率 50%以上の 借入金은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어 高利借入의 比重이 높은 반면 低利借入의 比重이 낮은 對照的 現象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借入金利率의 低下現象은 앞서 본 制度金融比重的 增大나 延滯의 減少등의 事實과 一貫性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V. 要約과 結言

우리는 최근의 農家가 지니는 金融 및 貯蓄去來의 特質의 變化를 把握해 보기 위해 극히 試驗的인 性格의 標本調査를 京畿道の 한 地域 農業自營農家 98戶를 對象으로 실시한 結果를 土臺로 하여 위에서 整理해 보았다. 아울러 1964年과 1971年에 農協이 실시한 農業信用 調査結果와 對比하면서 그간의 農家經濟與件의 變化에 따른 金融去來上의 特徵을 밝혀 보 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의 分析에서 얻는 重要한 側面을 關聯시켜 간단히 要約하고 거기서 導出되 는 政策的 含蓄에 言及해 두기로 하자.

먼저 農家가 保有하는 金融資産의 크기는 극히 經營規模가 작은 零細農層을 除外하고는 經營耕地規模의 크기에 不拘하고 상당히 平準化되어 있으며, 그 形態別 構成도 종래 主導的 位置를 차지해 왔던 契나 個人間的 貸付金등보다는 農協預金, 出資金, 控除拂入金 등의 比重이 현저히 높아지는 등 改善된 面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또 農家經濟規模의 擴大에 비해 農家の 金融資産規模는 약간 빠른 速度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農家總資産 및 農家所得에 대한 金融資産保有의 比率는 점차 높아져 왔다. 그러나 그 絶對額의 規模나 金融資産種類의 選擇의 程度는 아직도 매우 微微한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農業에서 오랫동안 痼疾化되어 왔던 逼迫金融으로서의 農家負債의 性格에는 많은 變化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우선 農家負債의 保有規模가 保有農家比率에서나 農家保有金融資産과의 相對的인 크기에서나 低下를 보이고 있으며, 形態面에서는 종래에 비해 現金形態가 늘어난 대신 農協을 통한 肥料, 農藥 등 營農資材의 外상供給을 제외한 食糧用現物負債의 存在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 農家借入의 源泉別 構成도 종래의 商人, 貸金業者, 農民 등 私金融主導型으로부터 農協을 중심으로 한 制度金融主導型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利率負擔도 상당히 低下되고 延滯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밖에 農家借入金의 用途面에서도 不足家計費充當, 冠婚喪祭, 負債償還 등보다는 農業經營費나 資本的 支出의 比重이 擴大되는 등 肯定的 側面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食生活 등 1次的 貧困問題가 어느 정도 解消된 現段階의 過去에 비해 改善된 모습 들은 農家經濟를 둘러싼 與件의 變動에 새로이 對應될 수 있는 方向으로의 摸索을 隨伴하

지 않으면 안된다. 즉 農村過剩 人口의 1次的 吸收에 의한 지금까지의 工業化에 뒤이은 農村勞動力에 대한 流出要請의 本格化, 米作技術 및 生産力의 현저한 向上에 따르는 對應, 農業部門에 대한 合理化要求의 增大 등을 農家金融의 側面에서 效果의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方案이 具體化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되는 몇가지 問題들을 위의 分析으로부터 抽出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上層農家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農家經濟剩餘를 지니는 階層을 對象으로 한 金融資産에 대한 認識과 그 積極의 選擇의 誘因을 提供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上層農에 있어서 오히려 金融資産保有에 대해 消極的인 現象이 보이는 것은 固定資産에 대한 選好, 金融資産에 대한 不信을 일으키는 經驗的 風土에 基本的으로 연유하는 것이지만 物價安定政策의 內實化는 물론 肥料等 營農資材生産企業의 優良株式의 斡旋등의 方案은 農家經營과 金融資産保有의 直結이란 면에서나 金融資産에 대한 認識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로 制度金融機構를 통한 政策金融의 提供은 機會均等的의 撒布式이 아니라 資金需要의 切實性에 따를 때 한층 農家の 資金不足을 多少나마 解消시킨다는 本來의 目的에 效率의으로 副應할 수 있을 것이다. 農產物價格政策이 一般的으로 上層農을 有利하게 한다는 效果를 지니는 점을 否認하지 못한다면 餘他の 政策手段에서는 階層隔差를 緩和시키는 效果를 지니는 選別的 手段의 採用도 考慮될 만하다.

세째로 현재의 制度金融은 대부분 短期的·季節的 資金需要를 充當하기 위한 短期金融에 지나치게 置重하고 있으나 장래 豫想되는 급격한 農業構造改編要請에 對應할 수 있는 中長期金融에 本格的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쌀自給후의 農業을 어떻게 改編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畚의 灌排水施設, 圃場整備 등의 施設과 新技術體系의 採用에 所要되는 機械購入등을 위한 中長期金融問題가 具體的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이번의 調査에서 보는 바 農家の 金融構造面의 好轉 現象은 말할 것도 없이,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採用될 穀價政策, 통일벼를 비롯한 新品種 開發·普及 등 종래에 비해 積極的인 農業政策의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政策努力의 結果로 이루어진 主穀自給의 達成과 農家生活水準의 向上을 維持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農業政策 또는 支援의 後退가 아니라 새로운 摸索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土地, 氣候 등 自然條件의 制約이 매우 큰 우리 農業에 있어 自由化의 물결속에서 政策의 保護가 급격히 後退한다면 매우 큰 費用을 招來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